미국에 도착하면 우선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은행구좌 개설하는 일입니다. 은행의 영업시간은 보통 월~금 아침 9 시 부터 5 시 까지 , 토요일은 9 시부터 1 시 까지로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1. 구좌 개설 하기

은행구좌를 개설하려면 여권과 함께 미국 거주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비자, 신분증명으로 와싱턴주 운전면허증 혹은 국제 운전면허증,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사진부착된 employee ID card, 혹은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가야 하며 우체국 사서함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집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요건은 각 은행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국제 유학생이 구좌를 개설할 때에는 I-20 Form 혹은 학생비자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국제 학생 담당 advisor 가 있으므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2. 체킹 어카운트 (Checking Account)

미국에서는 현금거래보다 개인 수표의 발행이나 직불카드(Debit Card) 를 이용한 결재방법이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건 구입시 대금의 지급, 각종 공과금 납부시 또한 개인 간의 돈을 주고 받는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체킹어카운트를 여시면 개인 수표를 발행하실 수 있고 직불카드를 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체킹어카운트는 예금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수표를 만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구좌에 예치하지 않으면 수수료(maintenance fee)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표나 직불카드(debit card)를 사용할 때에는 체킹 구좌에 있는 금액이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표 발행 은행이 수표발행인 구좌의 잔액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발행된 수표의 금액을 지불을 하기로 결정하면 잔액 초과 수수료(overdraft charge) 를 물게 됩니다. 은행이 지급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도 수표가 되어 부도 수수료(non sufficient fund fee)를 물게 됩니다. 직불 카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은행과의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은행구좌에 잔고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요즘 많이 이용하는 직불카드(debit card)는 신용카드처럼 직불카드의 종류에 따라 비자 카드 혹은 매스터 카드를 받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결재도 가능합니다. 사용 금액 만큼 수표가 결재 되듯이 체킹 어카운트 잔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직불카드는 현금을 소지하거나 수표를 쓰는 것 보다 편리하고 신용카드처럼 쓰실 수 있으므로 credit 이 쌓이지 않은 국제 유학생들이나 막 이민을 오신 분들도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잔액초과 수수료 나 부도수수료를 물지 않도록 사용금액을 수표 기입장에 기록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구좌를 여실 때 single account (혼자서 쓸 수 있는 개인 단독 구좌) 혹은 다른 사람과 같이 입출금과 내역에 있어서 동일한 권리를 갖는 공동구좌(joint account) 등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예금 통장은 없지만 한달에 한 번 씩 입출금 내역을 기록한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보내 줍니다.

3. 저축 예금 (Saving Account)

말 그대로 저축성 예금구좌를 말합니다. 체킹구좌와 달리 이자 소득이 있으며 체크발행을 하거나 직불카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돈을 계획대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축구좌의 이자는 연이율로 나타나고 보통 1~2% 정도 적용됩니다.이자는 단리와 복리로 나뉘어 지지만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이자를 통해서 1 년간 얻는 이자소득은 APY (Annual Percentage Yield) 로 표시됩니다.

4. 머니 마켓 어카운트 (Money Market Accou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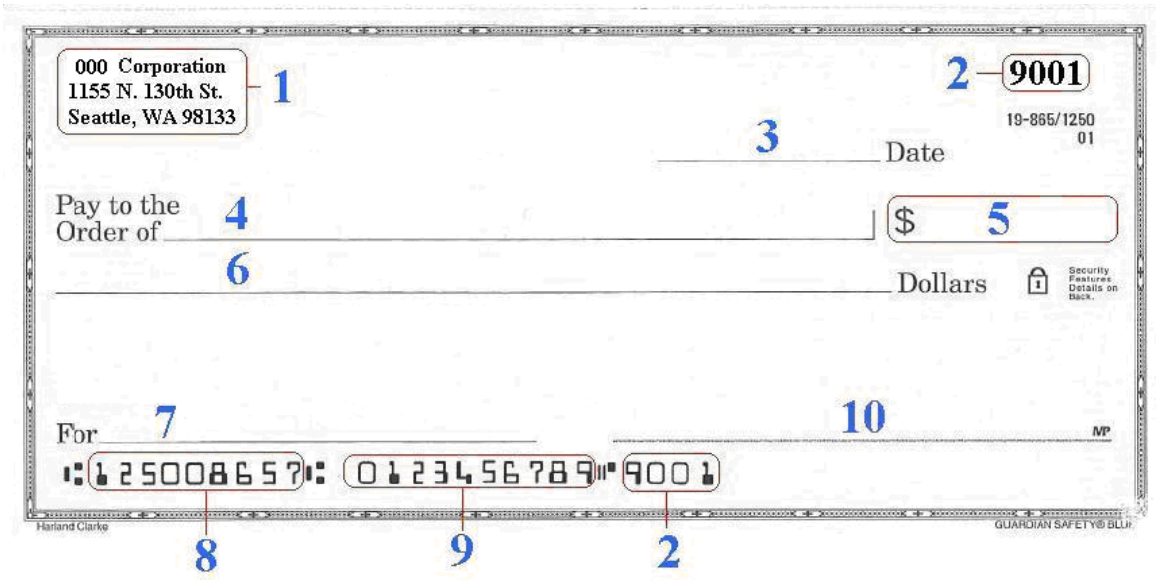
Money Market Account 는 개인 혹은 법인 계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장점과 저축구좌 처럼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합한 구좌로서 이자소득을 받기 위해서 일정수준의 평균 잔고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만 한달에 수표를 발행하는 숫자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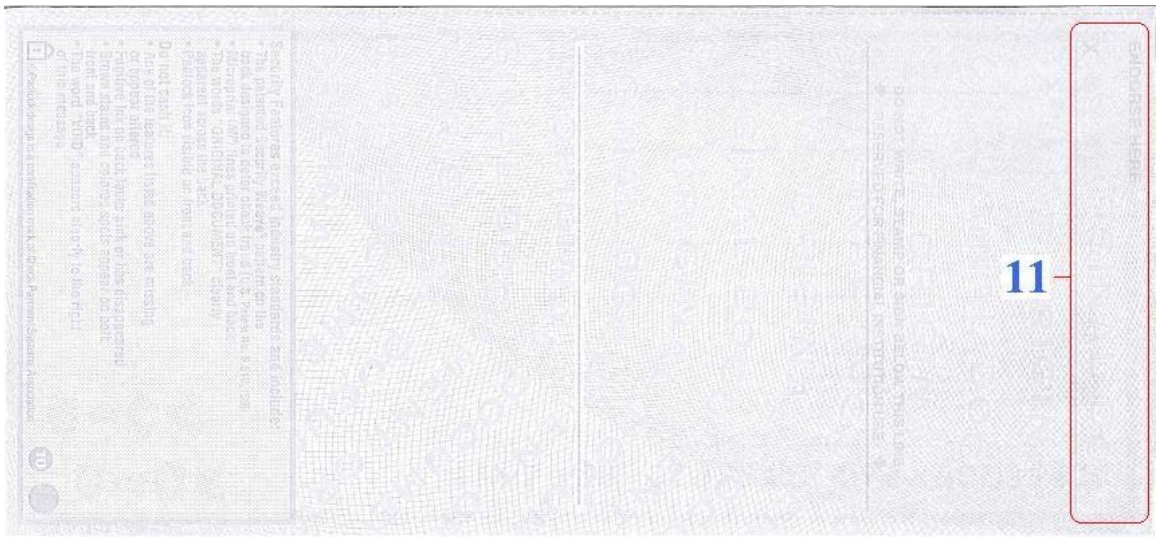
5. 양도성 예금증서 (Certificate of Deposit)

간단히 줄여서 CD 라고 부르는 이 상품은 일정액 이상을 은행에 넣고 정해진 이자를 받는 상품인데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일정 이자를 위약금으로 물게 됩니다.

6. 개인 수표 (Personal Check) 의 사용 방법

온라인 쇼핑이나 일반 쇼핑에는 직불 카드(debit card)가 더 편리하게 사용되지만 아직도 개인 수표는 현금보다 안전한 보편적인 대금 결재 방법입니다. 집세, 전기세, 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의 지불 및 구매 대금 혹은 은행에서 자신구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때 쓰이며, 개인간의 서비스 대금 결제등에 사용할 때는 현금을 대신하여 영수증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수표를 사용할 때에 그 자리에서 수료를 발행하는 날짜 , 수취인의 이름, 지불 액과 필요에 따라 사용 용도를 적은 뒤에 자기 싸인을 하여 건네 줍니다.
수표를 발행한 뒤에 분실 혹은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본인의 구좌에서 결재되기 전에 서비스 수수료가 있지만 해당 거래 은행에 지불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수표의 결점은 직불카드(debit card)에 비해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종종 대금 지불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거주지나 인접 도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같은 주 안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이나 타주에서는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수표발행자의 이름과 주소 : 은행에서 구좌를 새로 열었을 때 받는 임시 수표에는 이 부분이 공란이지만 보통은 신분 증명서와 대조하기도 하므로 주소 변경이 되면 새 수표책을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표 발행 번호
3. 수표발행 날짜
4. 수표 받는 사람 혹은 서비스 제공 회사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공란으로 두면 분실시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5. 금액: 숫자로 발행 금액을 적습니다.
6. 금액 : 영문자로 발행 금액을 적습니다. 은행에서는 숫자와 문자로 적은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문자로 적은 금액을 우선합니다.
7. 메모: 지불 금액의 사용 목적, 용도 기입합니다.
8. ABA Routing Number : 구좌가 개설 되어 있는 은행을 의미하는 번호
9. 계좌번호: 이 수표금액이 지불되는 계좌의 번호
10. 서명 : 본인의 서명하는 곳
11. 아래내용 : 수표 뒷면의 이서하는 곳.

수표뒤에 있는 Endorse Here x_____라고 적혀 있는 곳은 수표를 받은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현금화 할 때 서명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수표발행인은 이곳에 서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